



행정 관리 부실로 결식아동 급식비 무더기 소멸

제주도감사위, 2026년 9개 동 재무감사 결과 발표
아동 36명 지원금 미사용... 9명은 전액 사라져
일도1동 등 ‘쫄개기 발주’ 사례도 무더기 적발

제주지역 결식 우려 아동들의 한끼 식사를 책임지는 급식비 지원금이 행정의 관리 소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9개 동을 감사해 시정 14, 주의 31, 통보 9 등 총 54건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 일도1동, 이도2동, 건입동, 봉개동, 노형동과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동흥동, 서흥동을 대상으로 2023년 이후 민원처리 실태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24년과 2025년 이도2동·노형동·동흥동 아동 36명에게 지급된 급식 지원비 3514만2000원이 한 번도 쓰이지 못한 채 소멸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은 해당 연도 지원금 전액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도2동에 거주하는 2008년생, 2010년생 형제의 경우 카드 사용 안내를 받지 못해 지원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오해해 지원금 317만7000원이 전액 소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 담당자는 매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통해 급식카드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미사용 아동에게 전화, 가정방문을 통해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급식 상태를 점검해 위기 아동 발견 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도2동·노형동·동흥동은 1~3분기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4분기가 돼서야 가정방문 없이 문자, 전화로만 급식비 사용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결식 등 위기요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매월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미사용아동에 대해서는 전화상 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급식 상태를

점검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계약분야에서는 ‘쫄개기 발주’가 확인됐다.

제주시 일도1동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연간 단위로 계획·집행해야 하는 단일공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 2곳과 6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귀포시 정방동도 2025년 한 해에만 동일 업체와 세 차례 공방단가공사 계약을 맺었고, 제주시 노형동 역시 같은 공사를 상·하반기로 분할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해당 동에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훈계 조치 및 주의를 촉구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고위험 임신부’ 헬기로 타지역 병원 이송

제주지역에서 또 고위험 임신부가 타 지역으로 긴급 이송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9분쯤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임신 26주차 30대 임신부가 소방헬기로

부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임신부는 조기 양막 파열로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제주지역 병원에서선 진료가 불가능해 이날 소방헬기를 이용해 타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정기자

월정해수욕장서 ‘아세틸렌’ 가스통 발견

소방·해경, 긴급 출동 안전조치

제주의 해수욕장에 한자가 적힌 가스통이 밀려와 소방과 해경 등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2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를 출동시키고, 해경과 영산강유역환경청,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확인 결과 가스통 내부 물질은 ‘아세틸렌(탄화수소)’으로 확인됐다. 아세틸렌은 용접과 절단 등 공업용으로 널리 쓰인다.

해경은 가스통이 해안으로 떠밀려온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양유리기자

제주교총 “초등 교사 감축 칼날 제주에 집중”

교육청 대응 촉구 입장문 발표

내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56%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가 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감축의 칼날은 유독 제주에 집중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2027학년도 공립 교원 임용시험을 사전 예고했는데, 제주 초등 교사 신규 선발 예정 인원은 26명으로 전년도 사전 예고(60명)보다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9.4%)을 6배 이상 웃도는 수치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해상서 어선 충돌·침수

서귀포해경, 승선원 모두 구조

모슬포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1척이 침수됐으나 승선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8분쯤 서귀포시 모슬포항 남서쪽 약 2km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33t)와 성산선적 채낚기어선 B호(23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호가 기관실 좌현에 파공이 발생해 기관실이 침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해경과 제주해양특수구조대 등은 B호가 예인해 모슬포항으로 향하던 A호에 올라 타 승선원 9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구에 도착할때까지 배수작업을 실시했으며 파공 부위를 임시 봉쇄했다.

해경은 어선 B호 선장에 대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확인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어선 A호 선장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지역 23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말의 고향” 제주로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제주 23개 농업인단체 촉구

제주지역 농업인단체들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

도내 23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은 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일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국가적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는 말의 고향이자 대한

민국 최초의 말산업특구”라며 “생산과 육성, 조련, 경마, 승마, 관광과 문화까지 대한민국 말산업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지역이 바로 제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과 경제·관광·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마사회 제주 유치 범도민 추진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에 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낙상사고 3명 중 1명 노인... 매년 증가 추세

제주소방, 취약계층 낙상사고 예방사업 진행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3건 중 1건은 노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낙상사고 4만2160건 중 노인 안전사고는 1만4168건(3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소방은 ‘2026년 취약계층 낙상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안전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예방교육과 맞춤형 근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41개 경로당을 방문해 5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 내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낙상사고 취약가구를 선정해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미끄러운 바닥이나 장애물을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낙상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 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